

# 학습도시 서울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2008. 2. 11 제5호

이혜숙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 목 차 〉

### 요약

- I. 21세기 평생학습시대의 도래
- II. 취약한 한국 교육의 현주소
- III. 서울 교육의 미래: 학습도시를 위한  
서울시의 추진과제

## 요 약

21세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쳐 학습이 필요한 평생학습의 시대이다. 지식기반경제, 세계화, 고령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회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으며, 특히 지식창조와 활용능력은 경쟁력의 핵심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저조하다. 학교교육 위주의 국가 교육정책으로 인해 지금까지 평생학습참여율은 21.6%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낮고 평생학습 예산 역시 교육예산의 0.9%로 호주의 1/52, 일본의 1/6에 불과하다. 서울시에서는 2007년부터 488억 원을 들여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로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치중하고 있고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평생학습 관련 인프라 역시 매우 취약하며, 도서관, 문화관,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 시설이나 기관 간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7개 자치구에서 추진중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자치구 간의 직할 운영체제로 서울시의 행·재정적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는 시민의 역량이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로, 평생학습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이미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의 학습 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학습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의 경우에도 서둘러 학습도시를 선언하고 생애초기부터 고령기에 이르기까지 시민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학습도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서울시의 학습도시 사업은 '전 시민의 생애능력 향상'을 목표로 평생교육체제의 구축, 시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제고, 시민의 기본역량 함양 등 3가지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평생교육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종합계획의 수립과 통합적인 평생교육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주민센터를 학습기지화하여 시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는 노동부의 Work-Net과 연계하여 '서울 HRD-Net'을 운영하고, 평생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대학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평생직업능력개발협의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기본소양 함양을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저소득 - 저성취 학생을 위해 교육복지 투자학교사업과 연계한 'Zero-Start'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I . 21세기 평생학습시대의 도래

### 지식기반경제의 확산

□ OECD 국가들의 지식기반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50%를 상회

- 노동집약적인 산업사회와 달리 지식기반경제의 성장 동력은 지식, 정보, 기술 등으로 전체 산업에서 지식기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표 1> 지식기반산업의 구성비 및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1996, %)

국가	기업부문 전체 부가가치 대비 지식기반산업의 구성비	실질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1985-1996)	
		기업부문전체	지식기반산업
미국	55.3	3.0	3.1
일본	53.0	3.3	4.0
OECD	50.9	2.9	3.5
EU	48.4	2.4	3.1
한국	40.3	9.1	12.5

출처: OECD(1996).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1999: Benchmarking Knowledge-Based Economics, Paris. 김규원 외(2004). 지식정보사회의 교육혁신. p.17에서 재인용

- OECD(1999)는 지식의 창조능력과 사용능력을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쟁력의 원천으로 지적
  -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 및 전문적 지식,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이 가능한 교육과 학습에 주목
  - 지식의 내용 또한 사실적 지식(know-what)에서 방법적 지식(know-how)과 관계적 지식(know-who)으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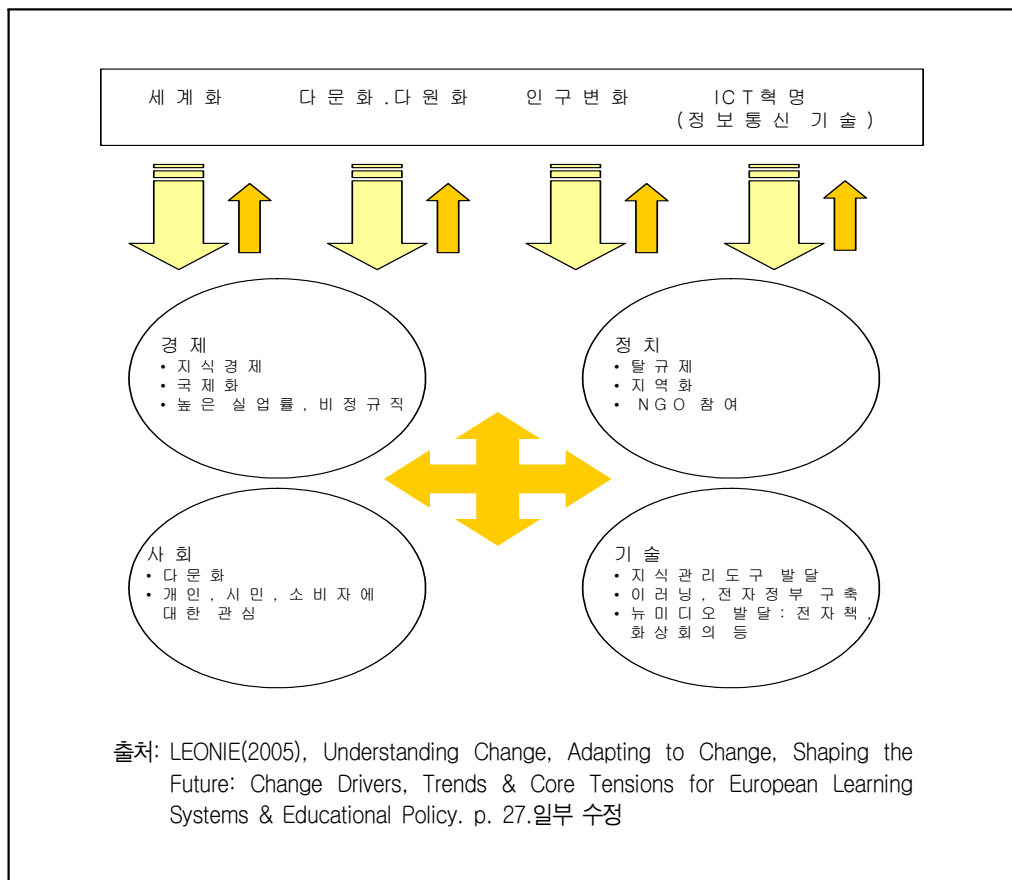
<표 2> 산업사회와 지식기반사회 학습양식 비교

구분 \ 사회	산업사회	지식기반사회(지식기반경제)
학습범위	형식교육 위주	형식·비형식교육
학습장소	학교	어디서나(학교 내외)
학습대상	학교 구성원 위주	누구나
학습매체	철판, 책	미디어, 컴퓨터, 인터넷
학습필요능력	문해능력	지식창조·활용능력

출처: 이재분 외(2006).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평생학습활성화 정책방안 연구. 재구성

□ OECD 국가들은 학교교육을 넘어서 학습의 일상화, 전생애화를 적극 추진

- 1996년 모든 사람을 위한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권을 교육정책의 기본틀로 채택



[그림 1] 평생학습시대의 사회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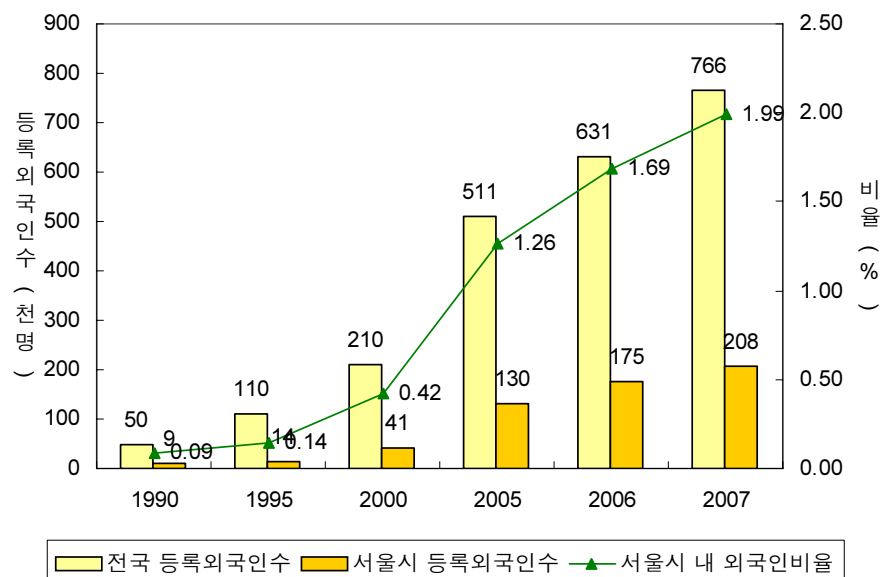
## 세계화로 국가 간 경계 약화와 경쟁 가속화

□ 세계화로 자본, 노동, 서비스, 재화 등의 국가 간 이동이 촉진

- 인력의 공간 구속성 약화로 양질의 인력 확보 경쟁이 가열되고, 동시에 자국 내 인력 양성의 필요성 약화
  - 이익창출지역으로 재화, 자본, 노동의 이동으로 국가 간의 불평등이 심화
  - 세계화와 더불어 민족 문화 약화로 자국민의 정체성 형성의 위기가 초래

□ 다문화·다원화 사회의 촉진으로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

- 1990년대 말부터 국제결혼 증가와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발생
  - 2007년 등록 외국인은 전국 724,967명, 서울 207,818명



출처: 법무부 2007년 8월 24일 보도자료  
서울특별시, 서울시통계 2007

[그림 2] 인구대비 등록외국인 추이

- 2006년 국제결혼은 39,620건으로 국내 전체 결혼의 11.9%를 차지
-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2007년 초중고 총 13,445명이며, 이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88%로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이 시급

## 고령화에 따른 인생 이모작 시대가 도래

□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평균기대수명이 연장, 정년 이후의 삶을 위한 학습 요구 증대

- 우리나라는 2018년에 65세 인구가 14%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
- 일본, 이탈리아는 200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스웨덴, 독일 등 OECD 주요 국가들은 가까운 미래에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
- 평균기대수명은 2020년 여자 84.2세, 남자 77.6세 예상

□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제2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평생학습이 필요

- 고령층의 이직 평균 연령은 만 53세로 구직을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 필요
- 통계청의 『2007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결과 고령층 인구 중 57.5%가 취업을 희망

<표 3> 직종별 평균근속년수(2006)

(단위: 년)

고위 관리직	전문가	기술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	기능직	기계직	노무직	전체
10.0	6.5	5.5	5.9	3.7	3.5	5.9	6.0	6.1	3.8	5.8

출처: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임금구조 기본통계

## 정보통신기술 확산으로 삶의 양식과 사회 변화

### □ 유비쿼터스 사회 진입으로 네트워크 사회 도래

-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물리적, 기술적 네트워크만으로 구축되는 사회를 넘어 사회문화적, 인적 요인들의 네트워크가 중요

### □ 개인별 맞춤형 학습과 적시학습이 이루어지는 U-learning 시대가 도래

- 교수학습의 쌍방향 이러닝 학습이 일상화
- 정규교육기관의 이러닝 도입 증가
  - 2006년 29.1%로 전년도 대비 2.6% 증가

<표 4> 정규교육기관의 이러닝 도입 비율

(단위: %)

학교 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계
			인문계	실업계			
2005년	14.5	33.3	50.0	38.3	50.0	64.5	26.5
2006년	16.7	35.0	52.3	39.2	50.5	66.0	29.1

출처: 산업자원부 · 한국전자거래진흥원(2007). 2006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현황 발표자료

- 현재의 학교중심, 교과서 중심의 체제에서 벗어나 초·중등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 다양한 교수학습 촉진

## II. 취약한 한국 교육의 현주소

### 고학력 인력구조에도 불구하고 국제 경쟁력은 저조

#### ☐ 고학력 인적구성이 높으나 국제 경쟁력은 취약한 상황

- 25세 이상 성인인구 중 고등교육 이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 2007년 현재 대학 진학률도 80% 이상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황

<표 5> OECD 회원국의 교육수준별 성인 인구 비율

(단위: %)

구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멕시코	스웨덴	영국	미국
고등 교육	A유형	22	25	16	14	13	21	22	14	19	14	28
	B유형	22	7	17	10	10	17	8	2	15	9	9

주: 1) 최종학력별 25~64세 연령의 인구 분포임.

2) A유형은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 특수 대학원 등으로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과 대학원에 해당

3) B유형은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비학위과정에 해당

출처: OECD(2006),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 ☐ 학교교육의 경쟁력은 높으나 대학교육 경쟁력은 저조

- IMD 교육관련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2007년 교육 경쟁력은 29위로 다소 저조

<표 6> IMD 평가항목별 한국의 순위

평가항목	2004	2005	2006	2007
교육경쟁력	44	40	42	29
GDP대비 인구 고등교육 이수율	52	46	34	29
25-34세 인구 고등교육 이수율	5	4	4	4
대학교육(경쟁사회요구 부합 여부)	59	52	50	40
수준급 엔지니어의 공급 여부	52	54	54	13
기업간 대학간 지식이전 정도	42	21	32	21

주: IMD(Institute for 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의 세계경쟁력 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은 OECD 회원국과 신흥공업국 19개를 포함한 4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2003년부터 59개국으로 확대하여, 경제운영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구축의 4대 요인과 20개 하위요인 및 321개 지표의 평가항목을 조사

출처: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년도



##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과 인식은 미미

□ 국가적인 학교교육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평생학습이 주목받은 것은 최근 일

-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참여율은 21.6%로 OECD 평균 수준을 하회

<표 7> OECD 주요국의 평생학습 참여율

(단위: %)

OECD 평균	핀란드	덴마크	캐나다	영국	한국
26	48	52	37	38	21.6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6). OECD 교육지표 2005.  
통계청(2006). 사회통계조사

- 직업관련 비형식 교육 및 훈련 참가율도 10.5%로 OECD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저조

<표 8> OECD 주요국의 직업관련 비형식 교육 및 훈련 참가율

(단위: %)

OECD 평균	핀란드	덴마크	캐나다	영국	미국	한국
18	36	39	25	27	37	10.5

주: 비형식교육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으로,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교수과정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의 학력, 학위인증을 받지 않는 교육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7). 2007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재구성

□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매우 저조

- 평생학습에 소요되는 예산은 교육예산의 0.9%로 OECD 주요국보다 현저히 낮음

<표 9> 주요국 교육예산 대비 평생교육 예산 비중

(단위: %)

호주	영국	뉴질랜드	미국	일본	한국
46.9	29.0	24.9	23.4	6.1	0.9

주: 한국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예산을 모두 포함. 교육인적자원부 예산만으로 대비하면 0.04%에 불과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4). 한국의 평생교육 수준 진단

- 기업의 교육훈련비 역시 노동비용 총액의 1.5%에 불과

<표 10> 노동비용 총액 대비 교육훈련비용 추이

(단위: 천원, %)

노동비용별	2004년	2005년	2006년	증감액	증감율
노동비용총액	3,057	3,221	3,393	172	5.3
교육훈련비	24	27	27	0	0
교육훈련비(구성비)	0.8	0.8	0.8	1.7	1.5

주: 1)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대상

2) 노동비용 총액은 급여 및 상여금 등 현금급여 등의 직접노동비용과 퇴직금, 법정·법정외복리비, 교육훈련비 등 간접노동비용을 포함한 비용

출처: 노동부(2007), 2006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 서울시의 학습지원은 아직 초보 단계

### □ 교육지원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

- 2006년 '우수인재양성과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조례'의 제정과 더불어 2007년부터 체계적인 교육지원사업을 실시
  - 미국은 1996년 성인교육법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정
- 그러나 서울시의 교육지원사업 예산 중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이 전체 예산의 80% 차지, 평생학습에 대한 예산은 전무

<표 11> 서울시 교육지원 사업 예산(2007년)

(단위: 백만 원)

지역 교육격차 해소			우수인재 양성 지원					합계
학습 환경 및 시설개선	학습 프로그램 지원	소계	영재학교 설립 지원	글로벌리더 양성 지원	특성화고 육성 지원	우수기능인 배출학교 지원	소계	
38,738	5,200	43,938	미정	250	490	400	4,888	48,826

출처: 서울시 경영기획실(2007). 2007년 교육지원 기본계획

□ 평생교육과 평생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총괄 조정 기구의 부재로 통합적 업무 추진이 어려움.

- 평생교육 관련 업무가 서울시 부서별, 서울시교육청, 자치구별로 따로 추진
  - 평생교육 관련 시설 및 기관 간 연계 부족

<표 12> 운영 주체별 평생교육시설

구분	평생교육시설	개수
서울시·자치구	도서관	25개
	문화원	24개
	박물관 미술관	3개
	청소년수련관	21개
서울시교육청	도서관	17개
	평생학습관	4개
	박물관 미술관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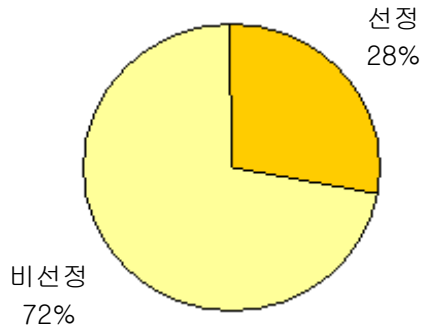
주: 서울시·자치구와 서울시교육청에 운영 책임이 있는 기관만 제시. 서울 지역의 공사립 평생교육관련 시설은 2005년 현재 1,012개임.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학습진흥과(2006). 서울의 평생교육 추진현황.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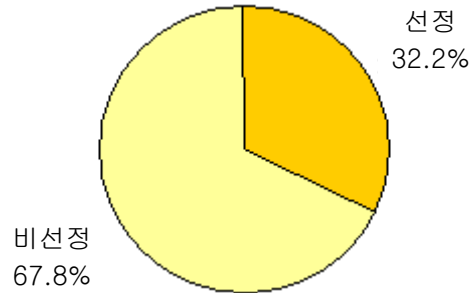
□ “교육인적자원부 - 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평생학습도시사업의 직할 운영 체제로 서울시 차원의 행·재정 지원이 없는 실정

평생학습도시사업은 1994년 창원시에서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부터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가 2001년부터 ‘평생학습종합진흥계획’에 따라 국가정책으로 추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역에는 첫 해 2억 원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제공, 이듬해부터는 경쟁을 통해 선정된 지역에 한해 약 5천만 원 정도의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지원

- 서울시 7개 자치구, 전국 76개 지자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



[그림 3] 평생학습도시 선정률(서울시)



[그림 4] 평생학습도시 선정률(전국)

<표 13> 서울시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
자치구	관악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강서구 마포구	7개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lll.or.kr>)

□ 앞으로 적극적인 서울시 차원의 학습도시 조성노력이 긴요

- 2007년 11월 22일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으로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등 시·도지사의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커짐.
- 자치구 중심의 평생학습도시사업에서 벗어나 전 서울을 학습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생애초기교육부터 고령자까지의 평생학습을 돌보는 학습도시를 선언할 필요가 있음.

### Ⅲ. 서울 교육의 미래 : 학습도시를 위한 서울시의 추진과제

####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학습지원이 필요

##### □ 21세기 세계화 시대에는 시민의 역량이 곧 도시 경쟁력을 결정

-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의 지속적 습득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
  - 미국 노동부 산하의 SCANS(Secretary's Commission on Achieving Necessary Skills)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으로 기초능력, 사고력, 개인적 자질,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처리능력, 시스템능력, 기술활용능력 등을 제시
  - 한국교육개발원은 지식기반사회 생애능력으로 의사소통능력,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력, 사고력, 대인관계 능력, 커리어 관리 및 직무수행능력, 정보활용능력을 제시

##### □ 시민의 학습은 개인의 몫이 아니라 지자체 몫이라는 관점의 전환이 중요

- 세계 주요국과 도시들은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을 지원
  - EU는 『신리스본전략』에서 시민의 능력 제고를 위한 생애 단계별 평생학습 전략을 개발하여 실행하도록 촉구
- 일본은 140여개 지자체(2004)가 학습도시사업 추진, 호주는 42개 도시(2005)가 학습도시를 선언

### 카케가와시의 평생학습도시 선언(1979년 4월 1일)

카케가와 시민은 적은 것에서 많은 행복을 느끼기 위하여, 건강하고 생기있고 활발하고 활기차게 살기 위하여, 서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 언제나 질문을 갖고 함께 모여 일생 동안 학습을 계속하고자 시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면서 카케가와시를 '평생학습도시'로 만들 것을 선언한다.

### 신리스본전략(Renewed Lisbon Strategy, 2005년 3월)

- 2002년 리스본전략은 '사회, 환경, 경제' 3개 목표를 제시했으나, 2005년에는 경제('성장' 및 '고용')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의
- 2005년 3월, 유럽이사회 의장국은 '인적자본이 유럽이 지닌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천명
  - 리스본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이 필수적임을 확인
  - 특히, 저숙련 노동자와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보장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
- 신 리스본 전략은 투자와 고용환경 조성, 지식과 혁신, 고용창출을 신 리스본 전략 3대 핵심 분야(Central Policy Area)로 설정하고, 10대 실행계획(Lisbon Action Plan)을 제시

#### 신 리스본 전략 10대 실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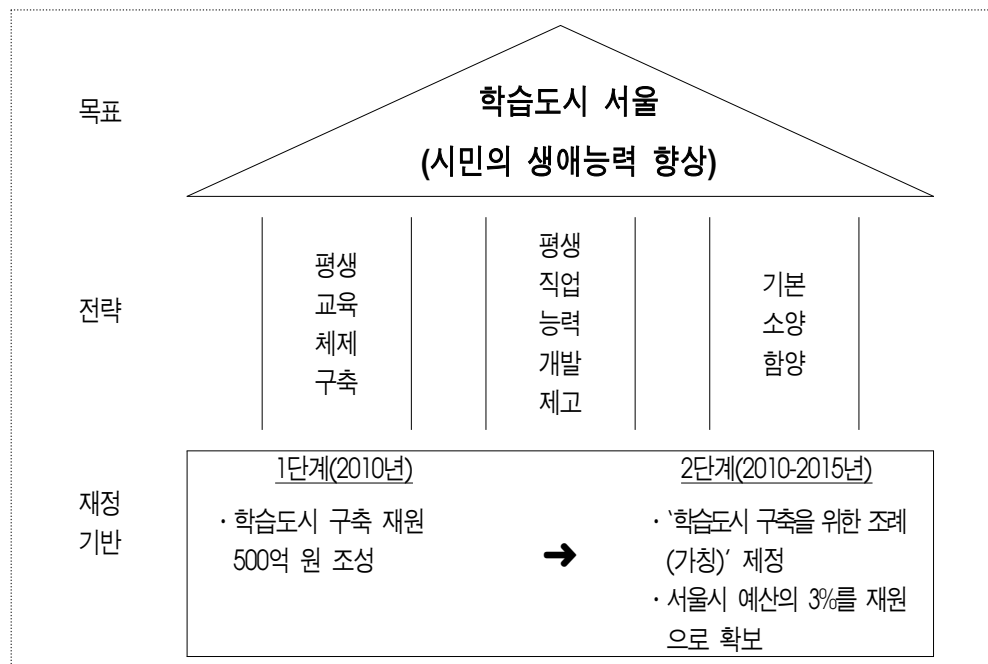
핵심 분야	실행계획(Action Plan)
투자과 고용하기 좋은 환경 조성	(1) 역내시장의 확대 및 심화 (2) 규제 완화 (3)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대내외 시장 확보 (4) 인프라 개선 및 확충
성장을 위한 지식과 혁신	(5) R&D 투자 확대 및 개선 (6) 혁신, ICT,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7) 강한 유럽의 산업 기반 구축
양질의 고용 창출	(8) 고용 확대 및 사회보장시스템 현대화 (9) 기업 및 노동자의 적응성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10) 교육 및 훈련 강화를 통한 인적자원 투자 확대 (2005년 EU차원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채택, 2006년 회원국 차원에서 평생학습 전략 채택)

출처: 국가인적자원종합정보망(<http://www.nhrd.net/>). EU의 신리스본전략

## 서울시의 학습도시 구축 전략과 과제

### □ 학습도시 구축 목표와 3대 전략

- '학습도시 서울'의 구축은 개개 시민의 생애능력의 향상 추구
- 시민의 생애능력 향상을 위한 3대 전략
  - 생애초기부터 노년까지의 학습을 돌보는 평생교육체제를 구축
  - 고용과 연계된 시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제고
  - 글로벌 시민으로서 기본소양을 함양
- '학습도시 서울'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 2010년까지 5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학습도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예산의 3%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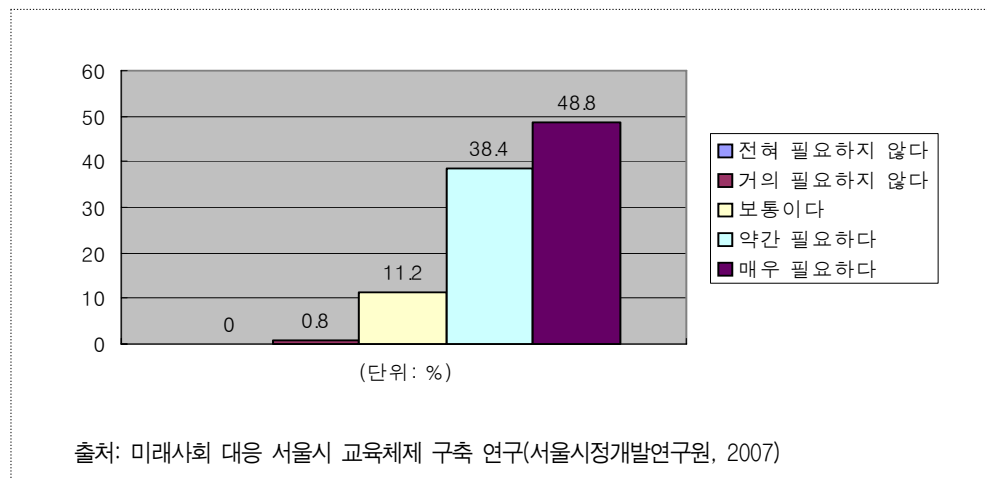
[그림 5] 학습도시 구축 목표와 전략

## 실행 전략별 추진과제

### 전략 1 : 평생교육지원체제 구축

#### □ 혁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지원체제를 구축

- 중·장기적인 평생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평생학습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평생교육 업무의 총괄과 기능 조정을 위한 통합적인 평생교육추진체계를 구축
  - 교육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그림 6] 통합적 평생교육추진체계 구축

- 예산의 일정 비율을 평생교육지원비로 확보하여 평생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흥할 필요가 있음.
  - 우선적으로 자치구 평생학습도시사업에 예산 지원



**유럽 평생학습 프로그램 (the Lifelong Learning Program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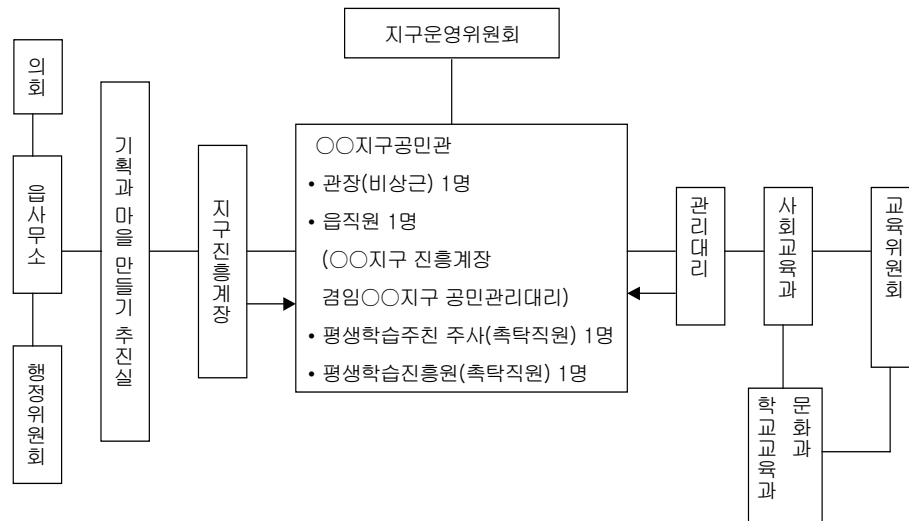
교육과 훈련 분야의 대표적인 재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2006년 유럽의회에서 재정의 승인을 얻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개인의 학습, 프로젝트, 해외교수활동을 지원하고, EU 내 교육 및 훈련기관간의 교환, 협력 및 이동을 지원하여 세계 수준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69.7억 유로 (euro)의 예산을 지원

□ 평생학습의 생활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학습기지로 활용

- 지역의 최소 단위인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학습기지화 해 평생학습을 생활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민자치센터의 복지, 교육, 보건의 통합 방안과 연계 하여 추진
  - 평생학습사 2명을 배치하여 시민의 학습활동을 조력
- 기존 평생학습관을 개편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로 조성
- 학교와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등 지역 인근의 문화정보시설을 연계하여 생활권역별로 공공 평생학습시설을 기반으로 한 지역기반 평생학습벨트 조성
- 학습동아리 활동의 성과가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습동아리에 공간 제공과 예산을 지원

## 평생학습 거점시설로서의 일본 공민관 조직

- 지역 공민관은 평생학습과 행정 지원 활동을 동시에 수행
  - 지역 살리기 거점 시설로서 주민의 의견과 제언, 아이디어 등이 지자체의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안테나 역할을 수행
- 공민관의 주요 업무
  - 평생학습을 위한 지역 만들기
  - 주민과 행정 각부를 연결하는 조정자 역할
  - 지역 만들기 지도자와 단체 양성, 볼런티어 조직의 설립



출처: 김득영(2006). 일본평생학습도시 프론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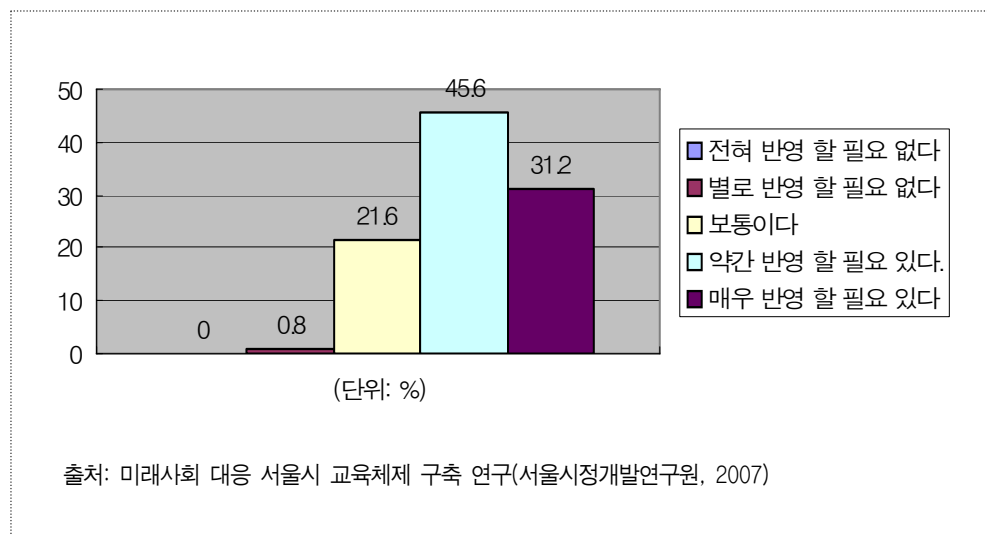
## 전략 2 : 학습-일-학습의 순환을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

- 노동부의 Work-Net과 연계한 '서울 HRD-Net'(가칭)을 운영하여 평생직업  
능력개발 연계시스템을 구축
  - 학습과 일, 일과 학습의 긴밀한 연계와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평생직업능력개  
발 추진 부서간의 협의와 조정을 위해 '지역 평생직업능력개발 협의회'(가칭)  
운영

- 개인의 경력관리를 위해 재직 근로자의 업무 관련 역량의 고양 기회를 제공
- 재직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서울시립대학 및 기타 대학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지원
- 재직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촉진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과 예산 지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확대하여 고용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

- 노인들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게 노인의 평생직업능력개발 기회 부여와 퇴직 고령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강화
- 2007년 교육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고령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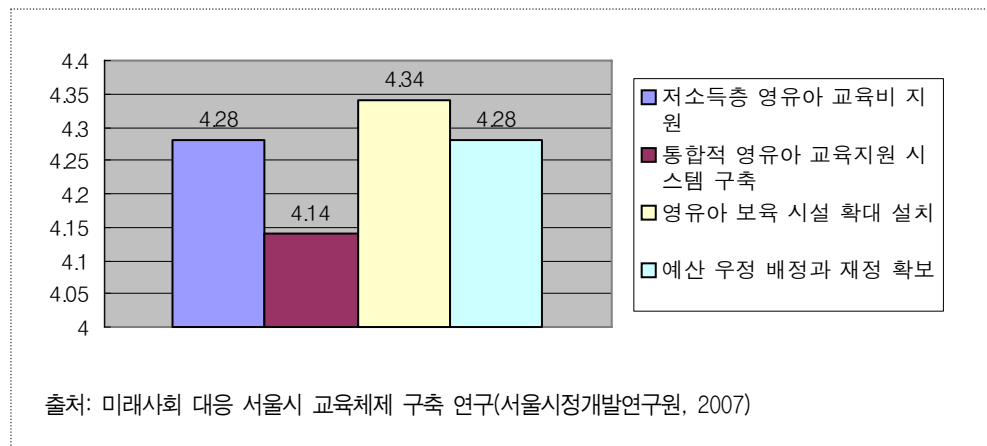


[그림 7] 고령자 평생직업능력개발과 고용연계

### 전략 3 : 시민의 기본 소양의 함양

#### □ 교육과 복지를 통합하는 생애초기교육 시스템을 구축

-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분산되어 있는 생애초기교육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
  - 영·유아 교육에서 민간시설 의존을 낮추고 보육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
  - 2007년 교육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확대가 가장 시급한 생애초기교육정책



[그림 8] 시급히 지원해야 하는 생애초기교육정책

- 국·공립 영·유아 보육 시설의 비율을 현재의 13%에서 2012년까지 20%로 높일 필요가 있음.
-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비 지원 수혜자 대상을 확대하고 보육비 지원 단가를 올려 생애초기교육의 공공성을 제고

-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기본 역량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 가정 학습부진아를 위한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
    - 대학생 멘토(mentor)를 활용한 보충수업을 시 차원에서 지원
    - 외국인 노동자 센터 내에 '공부방' 또는 학습 도우미를 제공
    -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지원을 위한 바우처 제도 시행 필요
  - '다문화 가정 학습지원 센터'(가칭)를 설치하여 구성원의 학습, 평생직업능력 개발, 고용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 - 저성취 학생의 학업지속과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로 스타트' (가칭) 프로그램 추진 필요
  -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 사업과 연계하여 2012년까지 서울시 전 자치구의 학교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혜숙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265

lhsook1@sdi.re.kr